

# 인류사의 전환을 위한 평화와 존엄의 대광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22년 1월 26일

## 혼미한 시대를 타파하는 '정시안'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선언한 지 곧 2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이 재확산되는 등 많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인을 잃은 슬픔과 일자리나 삶의 보람을 잃은 상처로 의지할 곳 없이 망연자실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각국에서 끊이지 않아 가슴이 아픕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영향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역사가 나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분명 이번 팬데믹이 미증유의 위협을 가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역사가 무엇으로 나뉘었는지를 돌이켜볼 때 '막대한 피해의 기록'만을 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역사의 행방을 근거에서 결정짓는 존재가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사태의 연속으로 갈피를 잡지 못해 부정적인 사건에만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지만 위기를 타개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에서 희망의 광명을 찾아내 그 범위를 다 함께 넓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위협의 양상은 다르지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42년 11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위기의 시대'에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참가학회 초대 회장은 혼미한 어둠을 없애는 열쇠에 관해 이렇게 논했습니다.

“눈앞의 일에만 사로잡혀 다른 존재를 살피지 못하는 ‘근시안의 삶’도, 말만 너무 앞서가 현실을 변혁하는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원시안의 삶’도 아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라는 목적관을 명확히 하고 자기 주변에서부터 행동을 일으키는 ‘정시안의 삶’을 사회의 기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시안’에 관해 마키구치 회장이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하다고 논한 대로, 본디 특별한 식견이나 능력이 있어야만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에서도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를 휩쓴 폭풍우에 직면한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뼈저리게 실감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사회의 영위가 없이는 자신의 생활은 성립될 수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기쁨은 깊어진다는 점.’

‘멀리 떨어진 장소에 덮친 위협이 머지않아 자신이 사는 지역에도 미치듯 전 세계의 문제는 상호 깊이 이어져 있다는 점.’

‘나라는 달라도 가족을 갑자기 잃은 슬픔이나 삶의 보람을 빼앗긴 고통은 똑같고 비극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점.’

그러한 의미에서 미증유의 위협을 통해 깊이 음미한 실감을 폭풍우 속에서 함께 빠져나오기 위해 연대하는 ‘유대’로 삼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이 심간에 새긴 “하늘이 맑아지면 땅은 밝아지고”(어서 254쪽)라는 불법(佛法)의 잠언처럼 인간에게는 전 세계를 뒤덮은 암운을 걷어내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지평을 비출 힘이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코로나19 위기를 비롯해 전 세계를 둘러싼 수많은 과제를 이겨내고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활짝 열기 위한 요체에 관해 세가지 각도에서 논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위기가 초래한 ‘타격의 격차’와 ‘회복의 격차’

### 개인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첫째 기둥은 코로나19 위기가 드러낸 과제에 정면으로 맞서 21세기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바람직한 사회’의 판을 다시 짜자는 제안입니다.

팬데믹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타격을 주었지만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타격의 크기는 달랐습니다.

이전부터 약자인 사람들이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진 데다가 평온하게 생활하던 사람들도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지게 된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있는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제한해도 일을 계속할 길을 확보할 수 있는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자신의 힘으로 대응할 여유가 있는지 등의 차이로 타격의 크기에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급히 사회를 재건해야 하지만 감염자 수와 경제지표라는 통계 수치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어려움을 떠안은 수많은 사람이 소외되는 윤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각지대를 방치한 채로는 이미 존재하는 ‘타격의 격차’에다가 ‘회복의 격차’를 재차 더하는 사태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재해와는 달리 코로나19 위기는 사회 전체가 재해를 입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피난소’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체감각으로 익힌 ‘타인과의 접근법’ 그 위에 자기 몸은 자신이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 이외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의식의 록다운(차단)’ 경향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염려됩니다.

‘타격의 격차’와 ‘회복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데 참고할 점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4개월 뒤인 2020년 7월에 개최한 강연입니다.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前대통령의 탄생일을 맞아 그 공적을 기리는 기념강연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세계를 둘러싼 상황에 관해 ‘위협’이 아닌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신종 코로나19는 빈곤층, 고령자, 장애인, 지병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코로나19 위기는 ‘우리가 구축한 사회의 취약한 골격에 생긴 균열을 보여주는 엑스레이(X-ray)와 같은 존재’라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강연 끝에 그 비전의 실마리로 일찍이 만델라 前대통령이 자국민에게 호소한 다음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타인이 있고 그 타인 덕분에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인간으로서의 연대감을, 우리 국민의 의식에 다시금 심는 일이 이 시대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도 만델라 前대통령과 두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생전의 ‘봄바람처럼 온화한 얼굴’을 떠오르게 하는 말입니다.

## 사회계약설의 구조적인 문제

근대 이후 정치 사상의 저류를 이룬 사회계약설의 한계에 관해 저도 2015년에 발표한 제언에서 미국 정치철학자 마사 누스바움 박사가 제기한 문제를 들어 논한 적이 있습니다.

누스바움 박사는 저서 '정의의 최전선'에서 로크나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은 '능력이 거의 평등하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가정하여 구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상호 존재가 이익을 낳는 '상호유리성(相互有利性)'에 중심을 두어 여성이나 어린이, 고령자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도 지지부진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이 여전히 짙게 남아 있습니다.

팬데믹에 대응하고자 각국이 마련한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 비율은 낮고 대책도 대부분 성별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소외받기 쉬운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은 것 외에도 부모를 잃거나 가족이 실직되어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고령자는 긴급상황에서 대응이 우선순위에 밀려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간 고립된 채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의료나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데, 더욱이 다방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한사람 한사람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상황을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이러한 실태와 정면으로 맞서 '상호유리성'을 제일로 꼽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를 맞이한 것이 아닐까요.

## 질병의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치는 가운데 건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생각하면서 제가 거듭 착안한 점은 지난해 6월 '세계 난민의 날'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우리는 모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다 함께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분쟁이나 박해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경든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약 8240만명을 넘었으나 이들은 각국의 사회적 보호에서 가장 소외받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UNHCR) 고등판무관을 오래 역임한 경력도 있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위기로 난민과 피난민들이 겪는 더욱 악화된 궁핍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주장한 말하기에 더욱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또 그 말은 우리 SGI가 내건 ‘자타 함께 존엄과 행복’을 지향하는 삶과도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 <유마경>에서 설한 ‘동고’의 생명감각

대승불교의 <유마경>은 그 생명감각과 세계관을 설화로 설했습니다.

“어느 날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해 존경받는 유마힐이라는 석존의 제자가 병에 걸렸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석존의 뜻을 받들어 문수보살이 유마힐을 찾아가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동행했다.

문수보살은 석존의 위로를 전한 뒤 ‘어째서 병에 걸렸는지, 병에 걸린 지는 오래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묻자 유마힐은 ‘일체중생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병들었다’고 대답했다.

유마힐은 그 말의 진의를 전하고자 비근한 비유를 들어 말했다.

‘어느 장자에게 자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자식이 병에 걸리면 부모도 병들고 만약 자식의 병이 나오면 부모의 병도 낫는 법입니다.’

보살로서의 삶을 관철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심정도 그와 똑같아 ‘중생이 병들면 곧 보살도 병들고 중생의 병이 나오면 보살도 병이 낫는 법입니다’ 하고 말했다.”

사실 유마힐이 특정 병을 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고뇌가 가지지 않으면 자신의 아픈 마음도 완전히 가지지 않는다는 ‘동고(同苦)’의 마음을 ‘병’의 모습으로 나타낸 비유입니다.

유마힐이 사람들의 역경에 ‘동고한다’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거나 부담이 아닌 ‘진정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직면한 역경에서 동떨어진 자신만의 안온은 없다는 생명감각이 맥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의 관점을 현재 코로나19 위기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질병과 그 영향에 따른 막대한 피해로 이너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물음에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 시련이라는 거친 파도를 함께 이겨내고 삶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사회를

### 겔브레이스 박사의 잊을 수 없는 말씀

이 물음을 떠올리면 경제학자 존 케네스 겔브레이스 박사가 일찍이 저와 나눈 대담에서 한 말씀이 뇌리에 되살아납니다.

박사는 대공황이나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동서냉전 등 많은 위기의 현장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입은 상흔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가슴에 새기고 경제뿐 아니라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계속 탐구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런 박사에게 21세기를 어떠한 시대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해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극히 짧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사는 것이 즐겁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대담에서는 이 시대 전망을 둘러싼 대화뿐 아니라, 불법 사상에도 ‘인간은 삶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중생소유락(衆生所遊樂)’의 세계관이 설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2003년)로부터 세월이 흘러 겔브레이스 박사의 말씀을 되새겨보니 새삼 공감이 갑니다.

어떠한 시련도 함께 이겨내고 ‘삶의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일이 실로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유엔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지 올해로 7년째를 맞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정체된 SDGs의 노력을 다시 힘차게 가속하려면 SDGs의 일관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이념을 보충하는 형태로 ‘다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비전을 거듭 맞춰가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이념은 재해 직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지만, 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사라지기 쉽다는 점이 염려됩니다.

또 팬데믹이나 기후변화처럼 문제의 규모가 너무 큰 경우에 위협에만 눈을 돌려버리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의 중요함까지는 인식할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위협에 맞닥뜨려 누군가가 쓰러질 것 같을 때 ‘부축해줄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요.

그래서 서두에서 언급한 ‘정시안’에 관해 논한 강연에서 마키구치 초대 회장이 하신 말씀을 들어 착안하

고 싶습니다.

마키구치 회장은 사회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행해야 할 ‘대선(大善)’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국가사회에 큰 일을 해야 대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따른 문제가 아니다.’ 비록 물 한잔을 내주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목숨을 건졌다면 큰돈으로도 바꾸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가치는 물건이 아니라 관계’라는 마키구치 회장의 신념이 맥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협을 극복하는 ‘만능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조력자’가 되고, 서로 도움이 되었다고 기뻐할 수 있는 관계를 심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정수를 설한 법화경에도 “추운 자가 불을 얻듯이” “나루터에서 배를 얻듯이” “어두운 데서 등불을 얻듯이”(묘법연화경병개결 597쪽)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시련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더는 무리라고 포기할 뻔한 순간, 도움을 받아 배를 타고 안전한 곳에 다다랐을 때 솟구치는 몽클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안도나 기쁨과도 닮은 ‘살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실감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 위협을 극복하는 국제협력을 강화

### 아인슈타인이 올린 경종

둘째 기둥은 지구 규모로 열린 ‘연대의식’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팬데믹처럼 각국이 일치해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위기는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백신 추가접종을 추진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지난해 말까지 국민의 40퍼센트가 접종을 마친 나라는 WHO 회원국(194개국)의 절반에 그쳐 백신의 세계적인 공급 격차가 심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백신을 구할 수 없어 접종을 마친 사람이 전체 인구의 약 8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백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남아 있는 가운데 ‘국제협력의 공백지대’를 시급히 해소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런 현상을 앞에 두고 일찍이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지적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잘 표현

한 말씀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긴장이 높아지던 1947년, 세계가 분단이 아닌 연대의 길을 가자고 호소한 말씀입니다.

박사는 중세 유럽에서 다수의 인명을 빼앗고 ‘흑사병’이라는 이름으로 맹위를 떨친 급성 전염병을 언급하고 ‘예를 들어 흑사병의 유행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심적인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단합하여 흑사병과 싸울 현명한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취해야 할 수단에 관해 그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들은 각 정부에 그 계획을 맡길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에 관해 중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택해야 할 수단에 관해 신속하게 의견 일치를 볼 것입니다. 설령 각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자기 나라만 흑사병의 해를 면하고, 다른 나라는 흑사병으로 다수의 국민이 목숨을 잃는 그런 수단을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반대로 현재, 박사가 상정한 감염병과 싸우기 위한 ‘현명한 계획’과 ‘채택해야 할 수단’에 관해서는 WHO의 팬데믹 선언 다음달인 2020년 4월에 ‘ACT-엑셀러레이터(ACT-Accelerator)’라고 부르는 코로나19 대책의 국제적인 협력 체제가 발족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sup>1</sup>의 시스템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44개국·지역에 총 10억회분 이상의 백신을 공급했습니다.

다만 자금 협력 지연이나 백신 확보 경쟁 등의 영향으로 COVAX가 당초에 계획한 ‘20억회분 공급’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 COVAX에 한층 더 강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이나 의료제품 공급을 촉진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G20의 고위급 독립패널이 보고서에서 강조한 대로 세계 전체로 보면 팬데믹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것도,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인 노하우나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감염병의 경우를 가정해 말씀했듯이 ‘현명한 계획’과 ‘채택해야 할 수단’이 COVAX의 활동과 G20의 방침 등으로 명확해진 지금,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자기 나라뿐 아니라

---

<sup>1</sup>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구매해 개발도상국 등에 분배하기 위한 국제 시스템. WHO 등이 주도해 19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이 참여했다. 중상위 소득국가가 직접 자금을 마련해 자국용 백신을 구매하는 방식과 각 국가나 단체 등이 제공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협에서 보호한다는 지구 규모로 열린 ‘연대의식’의 확립이 아닐까요.

### 세계보건기구 창설을 둘러싼 역사

역사를 돌이켜보면 WHO를 창설한 계기는, 유엔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개최된 샌프란시스코회의의 논의였습니다.

당초 보건위생 문제는 의제에 오를 예정이 없었지만 그 중요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 결과 유엔헌장 제55조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해야 할 분야 중 하나로 ‘보건’을 명기한 외에 제57조가 규정한 전문기구 안에 ‘보건분야’를 포함했습니다.

1946년에 개최된 설립 회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적과 아군의 차이를 초월해 각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대표도 참관국으로서 참석했습니다.

또한 당시 정세 하에서 획기적인 의의는 새로운 전문기구의 위상을 검토할 때 통상적인 회원국과는 별도로 ‘준회원국’ 자격을 마련함으로써 식민지 지배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독립을 이루지 못한 많은 지역에도 참여의 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전문기구의 명칭에 관해서도 유엔 회원국만을 상정하는 듯한 ‘유엔’이라는 단어가 아닌 ‘세계’라는 단어를 넣기로 결정해 1948년 4월에 정식으로 발족한 것이 WHO였습니다.

### 도다 제2대 회장이 제안한 ‘지구민족주의’의 선견성

저는 1993년 3월, 샌프란시스코회의를 개최한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연설에서 SGI가 유엔을 지원하는 의의에 관해 도다 조세이(戸田城聖) 창가학회 제2대 회장의 신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은사 도다 제2대 회장은 이 유엔헌장의 탄생과 거의 동시에 출옥해 창가학회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은사는 일본 군국주의에 저항하다 2년간 투옥되었지만 굴하지 않고 새로운 인간주의의 민중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은 유엔헌장의 이념과 깊이 일치합니다. 그야말로 반복되는 전쟁의 역사를 근원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의 발로였습니다. 우리는 은사의 이 정신을 원점으로 삼아 생명과 평화의 철리를 자

각한 민중 연대를 전 세계에 넓혀왔습니다.

유엔 지원도 ‘유엔은 20세기 영지의 결정체다. 이 희망의 요새를 다음 세기에 반드시 지켜내고 키워야 한다’고 하신 은사의 유훈에 따른 것입니다.”

도다 회장은 이렇게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전환해야 한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응축하여 70년 전인 1952년 2월에 ‘지구민족주의’ 사상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전쟁 등으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진 당시에 인류가 반복되는 비극적인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체로 ‘지구민족주의’를 내걸고, 이 단어에 ‘어느 나라의 민중도 절대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민중이 다 함께 기뻐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신념을 의탁했습니다.

팬데믹이 이어지는 지금 다시 한번 WHO가 창설된 경위를 돌이켜보니 그 명칭에 붙인 ‘세계’라는 단어에 담긴 의의가 도다 회장의 ‘지구민족주의’ 사상과 오버랩되어 가슴 깊이 밀려옵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181개국의 지지로 채택한 정치선언도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국적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이, 특히 취약계층이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리지 않도록 평등하게 배려하고 국제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본디 팬데믹에 대응하려면 국가 단위의 위기 탈출이 아닌 다 함께 위협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지난해 제언에서도 강조했지만 자국의 감염자 수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에만 착안하면 다른 나라와의 제휴보다 자국의 상황에만 관심이 기울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닌 세계를 동시에 덮친 위협에 ‘얼마만큼의 생명을 함께 구할 것이냐’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돌려 어느 나라든 그 일점에 목표를 맞춘다면 난국을 타개할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불법에서도 “남을 위해 밤에 불을 밝히면 (비추어진) 그 사람 앞도 밝아질 뿐 아니라 내 앞도 밝아진다. 그러므로 남의 혈색을 돋워주면 내 혈색도 좋아지고, 남의 힘을 키워주면 내 힘도 세지고, 남의 수명을 늘려주면 내 수명도 늘어난다”(신평 어서 2150쪽, 취의)고 설합니다.

이처럼 자타 함께 넓혀지는 ‘긍정적인 연관성’을 토대로 협력과 지원의 등불을 밝히는 나라가 늘어나면 위협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 지구 규모로 열린 ‘연대의식’을 확립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선언에서 인식을 공유했듯이 ‘국적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생명을 지킨다’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관련 종사자는 ‘세상의 보배’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불전(佛典)에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그 정신이 빠지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어느 의사의 신념 있는 행동을 예로 들어 나와 있습니다.

“석존 재세 당시에 인도 마가다국에 기바라는 청년이 있었다.

덕차시라라는 나라에 명이가 있다는 사실을 안 기바는 그 나라까지 가서 모든 의술을 배웠다.

‘배운 의술을 많은 사람을 위해 쓰자’는 마음으로 귀국했지만, 어느 날 국왕의 병을 치료한 일을 계기로 신임을 얻어 ‘앞으로는 나라안의 다른 사람들은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며 한정된 사람의 건강만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말았다.

그럼에도 마가다국 수도에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국왕의 허가를 받고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 치료했다.

카우삼비라는 나라에 사는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에도 서둘러 달려가 수술을 하고, 두통으로 괴로워하는 다른 나라의 왕을 살렸을 때는 거액의 보수를 제안하며 남아주기를 권했지만 거절했다.

그 뒤에도 기바는 병에 걸린 많은 사람을 구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타국에서 의술을 배운 기바는 자국의 한정된 사람뿐 아니라 서민들을 비롯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기바라는 이름에는 산스크리트어로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는 그 이름처럼 나라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고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석존 재세 시대에 존귀한 행동을 관철한 기바에 관해 13세기 일본에서 불법을 설한 니치렌(日蓮) 대성인은 “이 세상의 보배”(어서 1479쪽)라고 찬탄하셨습니다.

오늘날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에도 의료관계자들이 연일 전개하는 헌신에 한없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보배인 의료종사자를 전면적으로 지원하면서 ‘국적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생명을 지킨다’는 정신을 기반으로 보건분야에서도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새로운 감염병에 공동으로 준비하는 팬데믹 조약을 제정

### 주요국이 짊어져야 할 특별한 역할과 책임

이 점에 관해 저는 지난해 제언에서 코로나19 대책에 협조하는 데 행동의 중심축이 되고 앞으로 발생할 감염병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팬데믹에 관한 국제지침'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WHO의 세계보건총회 특별회기에서 앞으로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조약 체결을 위해 모든 회원국에 열린 정부 간 협상기구를 설치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교훈을 전제로 공평한 백신 분배와 정보 공유 같은 대응에 관해 미리 조약이나 협정이라는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3월까지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다음 팬데믹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저는 '팬데믹 조약'과 같은 국제조약을 조기에 제정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보여주듯이 어딘가에서 심각해진 위협이 지체 없이 지구상 모든 곳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실상입니다.

지난해 6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에서 발생한 보건분야의 위협에 국경은 없다고 공동선언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G7이 짊어져야 할 특별한 역할과 책임으로 '앞으로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공동 행동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되도록 국제적인 절차를 작성해 대응 속도를 개선할 것'을 채택했습니다.

G7 국가들은 이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팬데믹 조약'이 체결되도록 이끌고 그 기반이 되는 협력체제도 솔선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전에 G7에 러시아와 함께 중국과 인도를 더해 '책임 있는 국가의 정상회의'로서의 의의를 담아 발전적으로 개편하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이른바 강대국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인류공통의 위기를 타개하기 바라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연대하고 응답할 의사'라는 뜻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공통의 위기를 '위기 관리'라는 발상에서 보면 자국에 미치는 위협의 영향에만 관심이 쏠리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닌 지금이야말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회복탄력성(리질리언스)'의 힘을 함께 기르고 단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되는 '연대' 정신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많은 과제를 타개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연대' 정신에 기인하여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지구사회 건설을 추진하는 일이 바로 미래 세대에 남길 최고의 유산이라고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 ‘보람이 있는 일’을 젊은 세대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밝히는 경제 창출을

### 장래에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이 증가

이어서 셋째 기둥은 젊은 세대가 희망을 키우고 여성이 존엄을 빛낼 수 있는 경제를 창출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세계 경제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발표에 따르면 2억 5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되어 청년 취업률은 25세 이상의 취업률에 비해 크게 감소해 G20에서는 11퍼센트나 감소했습니다.

또 취업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직장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첫 업무를 원격근무 등으로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시작해 주위에 의지할 사람도 없이 계속 일해야만 하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학자금대출 상황이 더욱 무겁게 짓누르거나 자신이 지망하는 일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는 청년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미래의 직업에 대한 어두운 전망 때문에 40퍼센트가 불안감을, 14퍼센트가 걱정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제 재건은 서둘러야 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걱정을 덜어주거나,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밝히지 않으면 경제는 물론이고 건전한 사회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참고하고 싶은 점이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의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박사와 에스테르 뒤플로 박사의 고찰입니다.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함께 201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박사는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국내총생산(GDP)이라는 지표의 의미에 관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GDP는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소득에만 초점을 맞추는 듯한 ‘왜곡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다시 중심에 놓는다면 우리는 경제의 우선순위와 사회가 구성원들을 돌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저서는 팬데믹이 발생하기 한해 전인 2019년에 발간했는데, 인간의 존엄을 떠받치는 경제 창출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비극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는 일

바네르지 박사와 뒤플로 박사가 ‘인간의 존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정시안’에 바탕을 두고 경제 본연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언급한 테마 중 하나가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 책은 일전에 바네르지 박사가 유엔 고위급 패널(UHLP) 일원 중 한 사람으로서 SDGs를 제정하기 위한 회의에 참여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때 어느 국제 비정부기구(NGO) 멤버와 대화하다 그들의 활동에 공감한 박사는 뒤플로 박사와 함께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간호사로 일했지만 사고로 크게 다쳐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비롯해 심각한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아들의 양육권을 잃은 남성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는 NGO의 활동을 보고 두 박사는 ‘사회 정책의 본래 모습을 가르쳐준 사례’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는 그 사람이 가진 다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즉 ‘준비가 된’ 다음에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가 곧 그 사람의 회복 과정의 일부다.”

그리고 ADHD인 남성의 이후 모습에 관해 “일자리를 구한 뒤에 아들의 양육권을 되찾았다. 지금은 일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을 보면서 날마다 힘을 얻는다”며, 상황의 변화가 가족 전체의 행복을 넓혔다고 소개했습니다.

SDGs의 목표 중 하나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보람되고 인간다운 고용(양질의 일자리)’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일자리를 구한 뒤 행복을 되찾은 가족의 모습에서 ‘SDGs가 밝혀야 할 희망의 빛’을 본 기분입니다.

바네르지 박사가 유엔 고위급 패널의 일원으로 활동할 때와 같은 해(2012년)에, 저는 제언에서 SDGs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언급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은 물론, 비극으로 괴로워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얼굴에 웃음을 되찾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를 재건하는 데도 결코 이 관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네르지 박사와 뒤플로 박사는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곧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들을 ‘가난뱅이’라든지 ‘실업자’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봐야 한다. 개발도상국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우리는 희망이야말로 사람들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늘 목격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나 일터를 얻음으로써 존엄의 빛을 지역과 사회에 크게 밝히는 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ILO의 주최로 ‘인간중심의 부흥’을 다룬 다국간 포럼이 연내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각국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함께 공유하면서, 특히 젊은 세대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람되고 인간다운 고용’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 양성평등 추진이 급선무

### 여성을 둘러싼 열악한 상황을 개선

또 젊은 세대를 위한 활동과 더불어 앞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결여되어서는 안 될 기반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 추진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에는 이제껏 겪지 못한 부담이나 고생이 가중되고 있는데, 의료 제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70퍼센트가 여성입니다.

한편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거나 간병해야 하는 이유로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 단절되거나 어쩔 수 없이 휴직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여성이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차별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그 근본 원인을 뿌리 뽑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지난해 유엔 여성기구(UN Women) 등의 주최로 두 번에 걸쳐 개최된 ‘세대평등 포럼’입니다.

지난해 3월 멕시코에서 개최한 회합에는 85개국에서 온라인을 포함해 1만명이 참가해 양성평등을 위한 행동과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프랑스에서 개최된 포럼에서는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활동력에 속도를 내기 위해 5년에 걸친 글로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서 ‘젠더폭력’이나 ‘양성평등을 위한 기술과 혁신’ 등 다섯 개 분야와 더불어 중요하게 다룬 점이 ‘경제적 정의와 권리’였습니다.

성별 임금격차를 비롯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양성평등을 고려한 경제대책으로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줄이는 일 등을 주장했는데, 그중 특히 주목하고 싶은 점이 ‘돌봄 노동’에 관한 과제 개선을 위한 제안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 뒷바라지나 간병 등 돌봄 노동을 주로 여성이 무급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안에서는 여성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기 위해 국민소득의 3~10퍼센트를 투자해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과 관련된 고용기회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환경의 정비를 권장하였습니다.

## 돌봄 분야 확충이 불러오는 파급효과

이는 UN Women이 지난해 9월에 시작한 페미니스트계획<sup>2</sup>에서도 중시한 사항으로, 돌봄 노동을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에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19억명, 60세 이상 고령자가 10억명,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12억명이라고 추산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일정 형태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돌봄 관련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는 여성이 떠안은 부담의 경감뿐 아니라 어린이나 고령자, 장애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커다란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 <sup>2</sup> 페미니스트계획

지난해 9월, UN Women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부흥이 더 나은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세계 형성을 보장하도록 각국 정부에 행동을 촉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①여성의 생활을 보장하는 경제, ②돌봄 노동을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의 중심에 둘 것, ③친환경적 미래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내걸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봄 노동이 도움을 받는 사람의 행복과 존엄에 더없이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밀물’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구멍 난 배가 떠 있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양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직결하는 돌봄 분야 확충에 힘을 쏟는다면 많은 사람의 생활과 행복 그리고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를 착실히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SGI도 ‘만인의 행복과 존엄’을 사상의 중핵에 두는 불법 정신을 기반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 추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 UN Women이 ‘세대평등’ 캠페인을 추진했을 때 SGI를 포함하여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FBO)’에 속한 모든 단체가 유엔 기구와 협력해 뉴욕에서 열린 연차 심포지엄에서 양성평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FBO가 완수해야 할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거기서 공통으로 인식한 점도 팬데믹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 서려면 경제 대책은 물론 성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토고에서 삼림재생지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그 중심 역할을 하는 빈곤 지역 여성들의 임파워먼트를 지원하는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열대목재기구(ITTO)와 공동으로 지난해 1월에 시작한 활동인데, 삼림이 격감한 지역의 식수확보와 산림보호를 지원하고 아울러 여성들이 능력을 향상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경험한 여성들이 다른 지역을 찾아가 그 지역이 안은 과제를 체험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배우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새롭게 제정한 참가학회 ‘사회헌장’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힘든 역경에도 함께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해 시대 변혁의 파도를 일으킬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경제와 사회를 구축하는 원천은 바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가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이 두가지 시대 조류의 연원이 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sup>3</sup>가 열린 해인 1995년, 우리는 그해 11월에 ‘SGI헌장’을 제정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기본적 인권을 지킨다’는 등의 이념에 따라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창가학회 사회헌장’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그 헌장에서는 “불법의 관용정신을 바탕으로 타종교의 전통과 철학을 존중하며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력한다”는 기본자세를 제시하고 더불어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임파워먼트 추진에 공헌한다”는 등 10개 항목에 달하는 목적과 행동규범을 내걸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SGI는 192개국·지역으로 넓혀진 불법의 민중단체로서 한사람 한사람이 ‘좋은 시민’이 되어 우정과 신뢰의 연대를 넓히면서 ‘만인의 행복과 존엄’에 뿌리 내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듭 도전하고자 합니다.

### 일본과 중국이 행동의 연대를 넓혀 기후위기를 타개하는 견인력으로

이어서 현 세대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위해 어떻게든 조속히 해결해야 할 세가지 과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과제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경종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의 가속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 계속 확대될 뿐 아니라 각지에서 가뭄이나 산불이 빈발하고 해양에서도 수온상승과 산성화가 진행되어, 육지와 해양 양쪽에서 온실가스 흡수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개최했습니다.

협의를 각국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다 개최기간을 하루 연장하는 가운데, 당사국들은

---

<sup>3</sup> 제4차 ‘세계여성회의’

세계여성회의는 제1차 1975년 멕시코시티, 제2차 1980년 코펜하겐, 제3차 1985년 나이로비에서 5년을 마디로 개최되었다. 이후 제4차는 199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당시 189개국이 서명한 베이징선언과 베이징행동강령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포괄적 지침이 되었다.

‘세계의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한다’는 성과문서에 합의했습니다.

2015년에 채택한 파리협정은 ‘2도 미만’ 억제가 주목표였는데, 이번에 ‘1.5도’를 새로운 공동목표로 정한 점은 큰 전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이 표명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으로는 공동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은 폐막 성명에서 이렇게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1.5도라는 목표는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움직임은 여전히 약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고는 하나, 각국이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서명국이 약속을 준수해 실행할 수 있느냐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국면을 타개할 시나리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자원연구소 등이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퍼센트를 차지하는 G20 각국이 목표인 ‘1.5도’ 감축을 추진해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면, 평균기온 상승폭을 목표치에 가까운 1.7도 이내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협력을 심화

여기서 저는 COP26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협력을 약속한 미국과 중국처럼, 그 뒤를 잇는 형태로 일본과 중국도 이 문제에 합의해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의 시나리오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공동선언에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메탄가스 감축을 비롯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나 불법적인 삼림파괴를 저지하는 측면에서 2030년을 목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미중 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온실가스 40퍼센트 이상을 배출하는 양국이 인류의 공동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발 다가선 데에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일 양국도 기후변화 문제에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는 중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습니다.

다음 50년을 향해 출발하는 의의를 담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일 공동서약’을 책정해,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위한 행동의 연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환경문제에 오랜 기간 거듭 협력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양국을 오가는 철새와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협정(1981년)인데, 1994년에는 중일환경보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1996년에는 베이징에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대기오염 방지뿐 아니라 나무심기나 삼림보호, 에너지 대책 및 폐기물처리 대책 등 수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은 해에, 저는 베이징사범대학교가 개최한 명예교수칭호 수여식(2006년 10월)에서 환경협력에 힘쓴 양국의 역사를 언급하며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더욱 가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100년 앞을 내다본 장기적 전망에 서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일환경파트너십(협력관계)’을 구축하자고, 이 자리를 빌려 강하게 제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일 양국이 소중한 이웃나라인 한국과도 함께 힘을 합쳐 ‘환경조사’나 ‘기술협력’ 또 ‘인적교류’나 ‘인재육성’ 등을 더욱 강고히 추진한다면, 그 파동은 틀림없이 아시아 전체는 물론이고 전 지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를 거점으로 미국, 러시아, EU(유럽연합) 각국과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뿐 아니라 100개국을 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환경행정담당관 연수를 실시하는 등, 중일 간 환경협력은 큰 상승효과를 거뒀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이 쌓아온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세계에 ‘희망과 변혁의 파동’을 넓히는 도전을 힘차게 추진하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 유엔과 시민사회의 연계로 지구환경과 생태계를 보전

### 긍정적인 연쇄작용을 힘차게 창출한다

이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제안과 더불어 ‘유엔과 시민사회의 연계’를 강화할 제도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에 기후나 생태계를 비롯한 ‘글로벌 커먼즈(세계 규모의 인류 공유물)’를 종합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토의 자리를 마련해 청년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운영에 참여하는 체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서명을 시작한 자리이자 사막화 방지협약을 체결한 계기가 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지구환경회담)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습니다.

당시 체결한 세가지 협약에 관해서는 2001년에 공동 연락그룹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을 조율 했는데, 앞으로는 시민사회의 지원을 받아 서로 연동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거기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활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든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결책 또한 상호 연동을 통해 어려운 벽을 타파하는 새로운 힘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커먼즈’에는 어떤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공해(公海)를 비롯해 북극이나 남극과 더불어 지구를 감싸는 대기나 생태계와 같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불가결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현재에서 장래 세대에 걸친 보전을 도모하는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해부터 유엔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sup>4</sup>을 시작했는데, 세가지 조약 외에 다른 분야도 포함해 서로 연동해 대책을 마련하면서 문제해결에 함께 보조를 맞추는 ‘긍정적인 연쇄작용’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올 3월에는 유엔 환경계획(UNEP)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유엔환경총회 특별회의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합니다.

이 특별회의에서 ‘글로벌 커먼즈’의 관점을 기반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강화된 종합 대책을 담은 선언을 채택하자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글로벌 커먼즈’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 세계 청년이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유엔청년이사회를 창설

저는 지난해 제언에서, 청년의 관점에서 제안한 내용을 유엔 대표에게 전하는 ‘유엔청년이사회’ 창설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청년이 주체가 된 조직에 ‘글로벌 커먼즈’와 관련된 논의를

---

<sup>4</sup> 유엔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기후위기에 맞서 식량안전보장을 비롯해 물 공급과 생물다양성 보호 강화에 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생태계 복원을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3월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에서는 청년을 비롯해 여성, 고령자, 장애인, 원주민 등 모든 관계자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말기면 어떨까요.

2019년에 유엔에서 개최한 청년기후행동회의에 이어 지난해 9월, 유엔청년이사회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젊은이들의 국제회의 ‘청소년기후정상회의’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COP26보다 먼저 개최되었는데, 젊은 세대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정부 간 교섭에 반영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파리협정에 서명한 거의 모든 당사국을 포함한 186개국에서 젊은이 약 400명이 모인 국제회의에는 참가학회 청년부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 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구를 설치해 청년이 당사국 대표들뿐 아니라 청년들끼리 언제든지 공식적이고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청년이 전체 회의 마지막에 발언할 것이 아니라 처음이나 도중에 발언하도록 하고 개최기간 중에 청년의 발언 기회를 늘린다.”

이처럼 자신들의 생활이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기후변화 문제의 협의나 의사결정 과정에 일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세계 청년들은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 위기의 현장에 모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청년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밀라노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처럼 세계 모든 나라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청년이사회는 통상적 회의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전체 회의를 반년에 한번 다양한 도시에서 대면으로 실시하는 운영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회 전체 회의에서 도출한 성과를 유엔에서 진행하는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유엔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당초 여러 도시가 유엔본부 유치를 희망해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항해하는 선상에 유엔본부를 두어 항구적으로 세계를 항해하는 상태에 둔다’는 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뉴욕에 유엔본부를 두기 전까지 제1차 유엔총회는 런던에서, 제3차 총회는 파리에서 개최되는 등, 다른 도시에서 유엔총회가 개최된 경위가 있습니다.

유엔총회 장소를 선박에 마련해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한다는 안은 그 당시에도 기발한 아이디어였는데, 어떤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공해의 상징인 ‘글로벌 커먼즈’에 관한 아이디어에는 ‘인류의 의회’가 되도록 힘써 달라는 유엔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유엔 창설 전후의 역사를 상기하면, 청년이사회의 전체 회의를 뉴욕의 유엔본부에 한정하지 말

고 여러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도 한가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최지 선정에는 각국 청년도 포함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손실과 손해나 생태계 악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수많은 시민사회 대표가 참석하기 좋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 제가 설립한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는 각종 회의를 할 때, 테마로 선정한 과제가 심각한 지역을 골라 회의장으로 정해서 개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실에서 고뇌하는 민중의 의견을 듣고 민중 편에 선다’는 이념에 따른 것으로 현재도 해수면 상승의 영향이 심각한 태평양의 도서지역에 초점을 맞춘 기후변화문제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청년이사회 전체 회합을 개최할 때도 위기 현장에 가까운 곳에서 타개책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청년이 유엔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을 ‘유엔과 시민사회의 연계’를 강화할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과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활동도 언급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린이의 권리와 환경, 특히 어린이와 기후변화에 관한 과제에 초점을 맞춘 중요 문서인 ‘일반논평 제26호’의 초안을 잡기 위해 NGO나 모든 세대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고 다음달부터는 특히 세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반논평 제26호’를 만들 어린이들로 자문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어린이들의 의견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SGI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COP26을 개최할 때는 지구현장인터내셔널과 새롭게 공동 제작한 ‘희망과 행동의 씨앗’전을 개최한 것 외에 COP26에 마련한 참가 단체가 의견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세계의 미래를 진심으로 우려한다면 필연적으로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특히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연다’는 신념으로 일어난 청년들의 연대는 무엇보다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 ‘긴급시 교육’ 대응이 각국 공통의 중요 과제로

### 장기적인 학교 폐쇄가 일으킨 영향

둘째 과제는 어린이의 교육기회 확보와 이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팬데믹 발생으로 국제사회가 공중위생과 경제위기에 주의를 집중하다 보니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각국에서 확산되었습니다.

바로 학교 폐쇄와 수업 중단으로 교육 기회가 현저하게 상실된 위기입니다.

그 영향을 입은 어린이는 약 16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 폐쇄에 따른 영향은 배울 시간을 많이 빼앗겼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일상적인 교류가 갑자기 끊겨 성장의 보람이나 미래의 희망을 느낄 기회도 함께 잃음으로써 고독감에 빠지거나 의욕 상실 등 많은 어린이가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빈곤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에게도 '나날의 영양을 채워주는 생명선'인 학교급식이 갑작스러운 휴교로 중지되어 저체중이나 빈혈 같은 증상이 확대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처럼 장기 휴교나 대면 수업의 중단이 세계적 규모로 일제히 일어난 적은 학교 교육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 폐쇄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많은 나라가 온라인 형식으로 원격 학습을 도입했으나 디지털 환경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격차가 생겨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분쟁이나 재해 등 '긴급시 교육'을 지원하는 ECW(Education Cannot Wait) 기금<sup>5</sup>은 코로나19 위기에 즉응해 어린이 2920만명을 위해 원격 학습 등을 지원했는데 이러한 국제지원을 강화하는 일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외의 수단으로 원격 학습을 추진한 나라들도 있는데 그러한 경험을 다른 나라도 공유하면서 많은 어린이가 교육 기회를 조속히 되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에라리온에서는 팬데믹 발생 직후에 라디오를 활용한 원격 학습을 시작해 260만명의 학생이 학교가 폐쇄된 동안에도 계속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에볼라 출혈열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을 활용한 방법으로 원격 학습의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코

---

<sup>5</sup> ECW(Education Cannot Wait) 기금

분쟁이나 재해 등 긴급사태를 비롯해 장기화되는 위기로 영향을 받는 어린이와 청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기금. 2016년 5월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에서 설립했다. 난민이나 국내 피난민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면서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어린이뿐 아니라 교직원도 지원한다.

로나19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수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에게 태양광 충전 라디오를 배포하였고, 수단에서는 학교 숙제를 신문에 게재하는 등 어린이 교육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각국이 유연하게 대책을 마련한 의의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에게 언제 어떤 때에도, 어린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도 거기에 ‘교육의 빛’을 보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창가교육의 원류에 맥동하는 정열과 신념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에서 일하기 전에 빈곤지역에서 어린이에게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리스본 빈민가에서 교육은 빈곤을 없애는 원동력이자 평화를 위한 힘이 된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제가 창립한 창가교육의 학교와 대학에서 영원히 잊으면 안 될 원류도 지금부터 약 100년 전, 마키구치 초대 회장과 도다 제2대 회장이 심혈을 기울인 교육 실천에 있습니다.

당시 도쿄에서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개설한 특수 초등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한 마키구치 회장은 교내 숙소에서 살면서 영양이 부족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자 열심히 움직이거나, 병든 아동의 집에 직접 찾아가 돌보기도 했습니다.

깨진 창문에 두꺼운 종이를 발라 찬 공기를 막을 정도로 허름한 학교에서 교장으로 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학교를 방문한 교육 관계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로지 열정을 가지고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의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모든 정신을 쏟아 부었다.”

도다 제2대 회장도 같은 초등학교에서 일하며 마키구치 회장을 도와 당시 도쿄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빛’을 보내기 위해 젊은 정열을 불태웠습니다.

창가교육기관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취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한 이유도 두 선사의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소카대학교는 일본인 학생이나 유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외에 2016년에 UNHCR의 ‘난민고등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난민 학생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학원도 2017년부터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자이카)의 ‘시리아 평화를 위한 가교인재육성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UNHCR주일사무소나 유엔 UNHCR협회와 대학원 추천입학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학부와 대학원 두 과정에서 난민학생을 받아들인 일본 최초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난민이 된 어린이들이나 청년이 대학 등 고등교육에 진학할 수 있는 비율은 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난민 청년에게도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배움을 심화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창가학회도 UNHCR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1월부터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하고 싶은 빛이 있다’는 마음으로 난민과 그들을 수용한 국가의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르단에서 음악으로 희망을 선사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키우는 교육의 일환으로, NGO의 ‘국경 없는 음악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지에서 음악교육을 담당할 사람들을 육성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하계음악강좌를 각지에서 개최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맡은 음악가 타렉 준디 씨는 “우리 활동은 씨를 뿌리는 일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도 확실히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심전(心田)’에 가능성이라는 꽃들이 피어날 것을 믿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씨를 뿌리는 일에 교육의 주안점이 있지 않을까요.

## ‘교육혁신정상회의’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어린이를 위한 행동계획을

### 장애아동의 배울 권리

‘긴급시 교육’의 확충과 함께 세계 공동으로 삼아야 할 중심과제는 장애아동이나 청년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통합교육’의 촉진입니다.

유엔 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아동은 세계에 약 2억 4000만명에 달하며 젊은 세대의 10명 중 1명은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포용한다는 통합 이념을 바탕으로 다른 어린이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해도 사회적인 벽이나 차별로 인해 저지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 환경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발생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온라인 수업 등 원격 학습을 제공해도 각각의 장애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데다 집에서 학습도 가족이 전면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SDGs는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교육기회 확보나 장애를 배려한 학습 환경 정비를 호소하지만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과제 도 포함해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디 2006년에 장애인권리협약을 유엔에서 채택할 때 가장 많이 논의한 테마가 교육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 없이 실현하려면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통합교육’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협약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합리적 배려’가 없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특히 교육현장에서 배려를 빼놓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애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바뀌어야 할 과제라는 시각이 협약에서 제기된 배경에는, 협약 제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를 제쳐놓고 정하지 말라’는 강한 의견을 받아들여 각국 정부 대표만이 아니라 장애 문제 해결에 애쓰는 NGO 대표도 협약을 만드는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권리협약을 184개국지역이 비준했습니다.

다시 한번 협약 제정에 담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확충해야 하지 않을까요.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나 현재 UNHCR의 ‘장애아동 옹호자’로 활동하는 누진 무스타파 씨는 자신의 체험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교육이란 단순히 장애아동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고립감이나 거리감 등 일반 학생과 다르다고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의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배리어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자기 능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통합교육입니다.”

무스타파 씨는 시리아 분쟁을 피해 난민이 되어 열여섯 살 때 휠체어를 타고 약 5600킬로미터를 이동해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무스타파 씨는 인터뷰에서 독일에서 받은 ‘통합교육’의 의의 등을 회상하며 장애아동의 마음을 대변해 사회 전체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에서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회의 후미진 곳에서 생활하며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성장을 기대하지 않음을 뜻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가장 큰 오해는 우리 장애인은 이루고 싶은 뜻이나 꿈이 있을 리 없다는 단정입니다. 우리가 간직한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실낱 같은 희망이 장애라는 사실만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스타파 씨가 호소했듯이 사회의 몰이해나 편견으로 장애아동의 마음속에 있는 ‘삶의 희망’을 빼앗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앞으로 태어날 세대의 꿈을 지킨다

올 9월에는 유엔이 ‘교육혁신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교육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열립니다.

유네스코는 사회적 변혁에 대응해 교육의 역할을 재검토하고자 1972년과 1996년에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번 보고서는 25년 만입니다.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전 세계 100만명의 의견을 받아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교육의 불평등에 관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미래의 극단적인 시나리오 중에는 양질의 교육은 엘리트집단의 특권이 되고 대다수의 집단은 생활필수품이나 기본 서비스 없이 비참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있다. 현재의 교육 불평등이 점점 더 악화되고, 결국 교육과정의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변화가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난민 등 심각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교육지원과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2050년 이후를 내다보고 교육 본연의 모습을 생각하며 함께 만들어 내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혁신정상회의에서 논의해 ‘긴급시 교육’이나 ‘통합교육’에 관한 과제와 더불어 앞선 논한 지구 규모로 열린 ‘연대의식’을 키우는 ‘세계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의 행복과 교육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린이는 분쟁이나 재해를 비롯해 팬데믹 같은 위협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급시 교육’은 어떤 어린이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통합교육’ 정비는 여러 차별이나 환경 때문에 고통받는 어린이의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은 인류의 공통과제에 맞서는 기반으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도 스승인 도다 제2대 회장이 주장한 ‘지구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했고, 이는 SGI

도 특히 주력한 활동입니다.

21세기 말에는 전 세계 인구가 109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9월에 개최하는 교육혁신정상회의가 ‘어린이의 행복과 교육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해 지금 반석 같은 기반을 구축한다면 현재 어린이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어린이의 꿈과 희망도 틀림없이 지킬 수 있다고 저는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 핵군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장 재검토를 추진

### 팬데믹이 일깨워 준 교훈

셋째 과제는 핵무기 폐기입니다.

이를 위해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핵무기에 의존하는 안전보장에서 벗어날 방안입니다.

지난 1월 3일,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 정상은 핵전쟁 방지와 군비확산 경쟁 방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없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정신을 확인하고 군사적 대립 방지를 공동으로 추구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행동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자제(自制)’의 중요성에 바탕을 둔 공동성명을 기초로 핵보유 5개국이 NPT 제6조의 핵군축의무를 이행하는데 구체적인 조치를 촉진하는 결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하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올해 개최 예정인 NPT 재검토회의에서 합의해 ‘핵무기 역할 축소에 관한 정상급회의’ 개최를 최종문서에 넣어 NPT 회원국 이외에 핵보유국도 참여하도록 권유하면서 핵군축을 대폭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의 군사비용은 늘고, 핵무기도 1만 3000발 이상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핵무기 근대화는 전혀 멈추지 않아 핵전력이 계속 강화될 우려가 있어 걱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핵무기를 둘러싼 새로운 위험이 겹으로 드러났습니다. 핵 보유국 정상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일시적으로 집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 외에도 원자력항공모함이나 유도미사일구축함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등 지휘 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위기 발생이 전 세계에 일깨워 준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카미쓰 이즈미 유엔 군축 고위대표는 지난해 9월, 핵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그 교훈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은 언뜻 보기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태가 예고도 없이 실제로 일어나 지구 규모로 괴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도 이 교훈을 바탕으로 ‘핵무기로 인한 참극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과신은 금물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나카미쓰 고위대표가 강조했듯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이래 더 이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까닭은 시대마다 최악의 사태를 막은 사람들이 있고 요행이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환경은 계속 바뀌는데 보호장치는 부식되었거나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현재 세계에서 인적(人的)인 대책이나 요행에만 의존하기에는 이제 곤란해졌습니다.

실제로 핵군축에 관한 두 나라 간 조약은 지난해 2월에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연장하기로 합의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sup>6</sup>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1월에 개최 예정이던 NPT 재검토회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되어 8월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15년 회의는 최종문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했는데 그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됩니다. NPT 전문에 나오는 ‘핵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약속에 걸맞은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1985년 미소 정상외교장관이 발표한 성명의 의의

핵보유 5개국 정상외교장관이 공동성명에서 재확인한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없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정신은 냉전시대인 1985년 11월, 제네바에서 개최한 정상회의에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당시)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정신의 중요성은 지난해 6월 미러정상회의가 발표한 성명에서도 언급했는데 저는 유엔 안전보장이

---

<sup>6</sup>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제1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뒤를 잇는 협정으로, 2011년 2월에 발효한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협정. 협정 기한이 끝나가던 지난해 2월, 2026년까지 협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거리핵전력조약이 실효된 데 이어 영공개방조약도 미러 양국이 이탈한 가운데 핵무기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 우려된다.

사회에서 핵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하여 결의안으로 채택해 시대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5년 미소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양국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유익한 핵군축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획기적인 내용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은 당시를 회상한 인터뷰에서 핵군축을 결단한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산이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해 산 꼭대기에서 돌 하나를 굴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돌 하나가 계기가 되어 산의 모든 돌이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면 산은 무너져 버립니다. 핵전쟁도 마찬가지로 한발의 미사일 발사로 전부 움직여 버립니다. 현재, 전략핵무기의 제어와 관리를 완전히 컴퓨터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핵무기가 많을수록 우발적인 핵전쟁 가능성은 커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핵개발은 멈추지 않고, 타국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하나 또 하나 만들어내면서 ‘이 정도로는 산이 무너질 리 없다’고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 위협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핵억제 정책을 지속하는 한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 서서 언제까지나 벗어나지 못한다는 현실을 핵보유국과 핵의존국은 제대로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점에 관해 고르바초프 前대통령이 저와 나눈 대담에서 강조한 말이 떠오릅니다.

“핵무기가 안전보장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은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실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핵무기는 우리의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둘러싼 위험이 높아지는 현상황을 타개하려면 핵 의존이라는 안전보장의 ‘해독(解毒)’ 작업 모색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핵무기 전면 불사용’을 목표로 정상급회의를 히로시마에서 개최

핵억제 정책의 주안점은 타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어떻게 단념시키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핵 사용을 막겠다는 이유를 들면서도 핵억제 태세를 취하는 전제조건으로 자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늘 열어놓아야만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을 해소하고 자국의 안전보장정책에서 핵무기를 제외하려면 국제사회의 노력을 포함한 어떤 새로운 방안이 자국에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국의 안전보장이 아무리 중요해도 대립 국가나 자국에 괴멸적인 피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 기반에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을 일으킬 핵무기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의미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타국의 움직임에 향하는 눈길을 자국에 돌리는 ‘해독’ 작업에 착수하는 발상의 전환이 NPT 전문에 적힌 ‘핵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공통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 NPT 제6조가 제정된 의미

NPT의 목적은 핵무기의 위험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을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고착시키는 데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공통인식이 있기에 NPT의 중요한 기동으로 제6조에 핵군축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냉전시대와는 달리 긴급사태가 일어나도 실시간 화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정상 간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핵무기를 즉시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의심하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보유 5개국 공동성명은 ‘우리의 핵무기는 상대 국가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다른 어떤 국가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핵보유국은 이 ‘자제’에 기반을 두고 본격적으로 안전보장정책을 바꾸어 냉전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핵무기의 위험을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안전보장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 축소를 비롯해 분쟁이나 우발적인 핵 사용 위험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거나 새로운 핵무기 개발 중지 등에 관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에는 일본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 히로시마에서 ‘핵무기의 역할 축소에 관한 정상급회의’를 개최해 다른 나라 정상들도 참석하여 구체적 조치를 추진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어떨까요.

지난 1월 21일, 미국과 일본이 NPT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에서는 ‘전 세계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진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76년 동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명확히 상기시킨다’고 밝히고, 정치지도자나 청년들에게 핵무기로 인한 비극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정치지도자들이 피폭지를 방문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는데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정상급회의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상급회의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할 ‘핵무기 전면 불사용’을 촉구하는 환경 정비와 더불어 제2020년에 발표한 제언에서 언급한 ‘핵 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핵무기 운용에 AI 도입’ 금

지도 논의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NPT 제6조의 핵군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교섭을 본격화하여 핵폐기 흐름을 불가역적으로 만들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 핵무기금지조약의 보편화가 지속가능한 지구사회의 초석

### 핵무기금지조약 회의에서 일본이 적극적인 공헌을

핵문제에 관한 둘째 제안은 핵무기금지조약입니다.

3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하는 핵무기금지조약 제1차 당사국회의에 일본을 비롯한 핵의존국과 핵보유국이 참관국으로 참석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사국회의에서 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 국제협력을 착실히 추진할 ‘상설사무국’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비회원국 가운데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를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독일도 참관국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ATO는 이미 핵무기에 대한 대응을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정해 나아갈 것을 허용했고, 핵무기금지조약에도 핵보유국과 동맹관계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 세계 도시가 조약을 지지하고, 자국이 조약에 참여하기를 촉구하는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ICAN 시티즈 어필’에 NATO 회원국 중 수많은 도시가 참여하는 가운데 당사국회의에 노르웨이와 독일이 참여하는 의의는 지대합니다.

‘ICAN 시티즈 어필’에는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의 여러 도시 외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국회의가 논의할 주제는 ‘핵 사용이나 실험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과 ‘오염지역 환경개선’도 포함하고 있으니, 일본이 논의에 참여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해 실상과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서로 나누는 데 공헌해야 하지 않을까요.

함부르크대학교 평화연구·안전보장정책연구소 올리버 마이어 주임연구원은 독일이 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에 관해 ‘다국간주의와 핵군축 강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가교’ 역할을 지향하는 일본이 참여하는 의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교’란 스스로 다리 양 끝에 찾아가서 논의해야만 가능하다. 피폭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일본은 2017년부터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식자를 포함한 ‘핵 군축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현인(賢人) 회의’와 후속 회의를 진행해 그 성과를 보고하여 건설적인 논의에 이바지한 의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일본은 조기 비준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일찍이 집속탄금지협약 제1차 당사국회의를 개최했을 때 34개국이 참관국으로 참여했는데 그중 많은 나라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나라가 참관국으로 참여해 어떻게든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당사국과 시민사회의 진지한 노력이 모여 조약이 개척하는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함께 재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군축조약이라는 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괴멸적인 참상을 저지하는 ‘인도주의’와 세계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인권’이라는 규범을 골격으로 하는 조약입니다.

또한 앞서 기후변화 문제를 논하면서 언급한 ‘글로벌 커먼즈’ 관점에서 보면 ‘인류 전체의 평화’나 ‘미래 세대의 생존 기반이 되는 지구의 생태계’를 지켜내는 초석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조약입니다.

그러한 조약의 진가를 감안하여 핵무기에 의존한 안전보장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흥금을 터놓고 대화해야 합니다.

빈에서 개최하는 당사국회의를 계기로 견해의 차이를 뛰어넘어 거듭 대화하면서 당사국 확대와 더불어 서명이나 비준으로 즉시 이어지지 않는 않더라도 조약의 진가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연대를 확대한다면 ‘핵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힘’으로 결실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핵무기금지조약을 위한 ‘상설사무국’을 설치해서 이 사무국이 조약의 이념과 의무를 보편화하는 ‘각국과 시민사회의 연합체 중심축’이 되기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SGI는 2007년에 시작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민중 행동 10년’ 활동을 통해 ICAN 등 단체와 협력해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을 후원하는 등 조약이 실현된 이듬해(2018년)부터는 ‘민중 행동 10년’ 제2기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제2기 활동에서는 시민사회가 직접 조약의 이념을 넓히는 데 주력하는 만큼 올해도 그 흐름을 더욱 강화하려 합니다. 전 세계적인 민중의 지지야말로 조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로 만드는 비인도성

돌이켜보면 격동의 20세기에 여러 위기를 경험한 경제학자 갤브레이스 박사가 이것만은 모두 하나가 되어 반드시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한 과제가 바로 핵무기 위협의 제거였습니다.

박사가 자서전 마지막에 ‘회고록의 저자가 어디쯤에서 공적인 일에 관한 펜을 놓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굳이 마지막에 남긴 과제는 그의 전공인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해 가을 일본을 처음 방문한 이래, ‘한번도 그 교훈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한 핵무기 문제였습니다.

거기에는 1980년에 박사가 연설한 한 구절이 씌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핵무기경쟁 억제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지난 며칠간 논의해온 다른 모든 문제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공민권 문제도 사라질 것입니다. 공민권 혜택을 받을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황폐된 도시의 문제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다른 문제는 의견이 갈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한가지만은 합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 인류를 뒤덮은 핵의 공포를 제거하고자 진력하겠다고, 미국의 모든 국민, 모든 동맹국, 전 인류에게 맹세한다고 말입니다.”

겔브레이스 박사가 설파한 대로 핵무기의 비인도성은 그 공격이 불러일으키는 괴멸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좋은 사회와 세계를 만들고자’ 오랜 세월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핵으로 한번 대응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無)로 돌아가는, 무도하기 그지없는 위협을 늘 곁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핵 시대의 실상입니다.

### 현대문명의 일홍을 도려내는 도전을!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핵폐기 운동의 원점은 도다 제2대 회장이 1957년 9월에 발표한 ‘원수폭금지 선언’입니다.

핵보유국의 핵군비확산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그 한달 전에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처음으로 성공해 지구 어느 곳이든 핵 공격이 가능해짐으로써 세계의 ‘새로운 현실’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도다 회장은 어떤 나라든 핵무기 사용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핵보유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에 대해 ‘그 핵무기 속에 숨은 발톱을 뽑아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호소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의미와 존엄의 무게 그리고 사회 모든 영위까지 통째로 빼앗아버리는 극단적 비인도성에 대한 도다 회장의 분노를 불이(不二)의 제자로서 온몸에 새긴 일이 어제처럼 떠오릅니다.

저도 1983년 이래 ‘SGI의 날’에 즈음해 40회에 걸쳐 계속 제언을 발표하면서 핵 문제를 거듭 거론하는 등 핵무기금지조약 실현에 모든 각도에서 노력한 이유도 핵 문제라는 ‘현대문명의 일홍’을 해결하지 않

고서는 인류의 숙명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다 회장의 ‘원수폭금지선언’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되어 제1차 당사국회의가 드디어 개최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나 핵실험과 핵개발에 따른 세계의 피폭자를 비롯해 수많은 민중이 절실히 바라는 핵무기 폐기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국면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도전이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는 신념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연대를 넓히면서 누구나 평화롭게 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평화문화’ 건설을 목표로 끝까지 전진할 결심입니다.

### 참고문헌

1.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10권 제삼문명사 인용·참조
2. ‘니치렌대성인어서전집’ 254쪽, 화광신문사
3. 유엔 홍보센터 홈페이지
4. ‘정의의 최전선’ 가미시마 유코 옮김, 호세이대학교 출판국
5. ‘현대어역 대승불전3’ 나카무라 하지메 도쿄서적 인용·참조
6. ‘인간주의의 대세기를’ 우시오출판사
7. ‘묘법연화경병개결’ 597쪽, 화광신문사
8. ‘나의 노년의 기록들’ 이종철 옮김, 지훈출판사
9. 신판 ‘니치렌대성인어서전집’ 2150쪽, 세이쿄신문사
10. ‘불교설화대계’ 제11권 나카무라 하지메, 마스타니 후미오 번역 감수, 스즈키출판사
11. ‘니치렌대성인어서전집’ 1479쪽, 화광신문사
12.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에스테르 뒤플로 저, 생각의힘
13. ‘평전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창가학회의 원류> 편찬위원회 제삼문명사 참조
14. ‘핵의 아메리카’ 요시다 후미히코 저, 이와나미서점

15. '신세기의 여명' 우시오 2009년 3월호 수록
16. '중국신문' 2021년 12월 6일자 조간
17. '겔브레이스 저작집' 제9권 마쓰다 센 옮김, TBS브리태니커 인용·참조
18. '도다 조세이 전집' 제4권 세이쿄신문사